

[붙임자료_기획안]

세상을 바꾸는 바람, 햇살, 온기

배운 여자

권익옹기스 배운 여인이
광복의 비극을 몸담아온대여 비롯
공정여 연립에 인공의 희망이 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상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입장의 정체는 무엇인가?

권익옹기스

기획 의도

지난 2008년 촛불 정국에서 가장 유쾌한 무리의 등장은 단연 '배운 여자'의 등장이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정치세력으로 주목받은 적이 없었던 여성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사회 변화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배운 여자'라 불렀고, 이 사회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말하는 '배운 여자'란 단순한 고학력 여성이 아니라, 학벌과는 무관하게 이 사회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는 '개념 있는' 여성을 뜻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문이 하나 생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진짜 배운 여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이 기획은 바로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땅의 많은 평범한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나라 걱정을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고 싶다. 그런데 그녀들이 역할 모델을 삼을 만한 여성 지식인들의 이야기는 감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기획에 참여하는 필자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직업인으로 사회인으로 제 맡은바 몫을 해내려 애쓰고 있는 여자들이다. 잘난 여자들의 무용담을 들려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사람의 여성 지식인으로 또 양심 있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 나는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며 또 좌절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 보려 한다.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회 어디선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또 다른 '배운 여자'들을 위한 글을 쓰려 한다. 이들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 단 한 사람의 외로운 여자라도 잠시 등을 기대 위로 받을 수 있다면, 이 기획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배운 여자
Long Tail 기획

'배운 여자' _ 단순히 많이 배웠다는 고학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배운 지식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활용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신조어. '여자'라 쓰지 않고 굳이 '여자'라 부르는 것은 1920년대에 등장해 자기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동시대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신여성'에 빚은 의미가 담겨 있다.

연재처

hook 육 세상을 향한 오피니언 편지

<http://hook.hani.co.kr/>

<배운여자> 입지인성남

한겨레 신문 사이트 내 칼럼 기고란 <육>에 연재.

연재 후 씨네 21 북스에서 단행본 발간 예정.

예상 필진(게재는 무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최소 30매 이상, 매주 연재

박영숙(미래포럼 이사장), 김영란(전 대법관), 김보숙(MBC <PD수첩> 전 프로듀서), 정세진(KBS 아나운서), 박미현(성미산 <동네 부엌> 대표),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김진애(국회의원), 박명진(서울대 부총장), 윤정숙(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문소리(영화배우), 한경희(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조기숙(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이유정(변호사),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나은(콩세알 나눔마을 대표), 홍수연(이웃친과 원장), 박성혜(전 싸이네스 본부장) 외

김영란

*원고료 관련

여러 분들이 참여하시는 공동 집필 기획이라 원고료가 약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원고료 지급 방식은 필자 여러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택 1이 가능합니다.

1) 총 30만 원

: 10만 원(한겨레 연재료) + 20만 원(씨네21북스 원고료)

2) 총 10만 원 + 1/n 인세

: 10만 원(한겨레 연재료) + @ (출간 후 인세 발생 금액에서 1/n 금액) -> 인세율은 책 정가의 10%이며 필자는 20명 이상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이냐
태어난 년월일 때를 알려주세요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

신정 3월 26일

박영숙 (재) 살림이 이사장

남에수화사 함께 시작하는 60리 활동의 길

내가 60년 동안 여성운동,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시민사회운동에 줄곧 몸담게 된 것은 1951년 6.25 전쟁 당시 부산 피난지에 개설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면서 대학 YWCA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학교의 학생회를 겸하고 있었던 대학 YWCA가 전란이 남긴 **상흔에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참여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당시 태동하고 있던 가족법개정운동을 접하면서 **개화된** 부모의 덕으로 내가 일찍이 깨닫지 못했던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문제를 깨우치며 여성운동의 활동가가 된 것이 80세가 다 된 지금까지 활동가로 살게 하고 있다. 단지 장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갓 태어난 아기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호주가 된다는 사실에 황당해했던 충격은 1990년 제13대 국회에서 가족법이 개정되고 여성들에게 마지막 족쇄로 남아있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2005년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이어졌다.

활동공간을 뒷편으로 한채 전방배방인들을 유선하고, 방학차례를 동춘계봉할 등으로, 주일에는 YWCA의 중립학생 중립지대로 비변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리대 공부를 해와 한때 체력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후회는 없었듯이 (항상 하는 병명 후) 이리대 중립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공복에 유선과 중립지대로 YWCA 임무자로 임명되어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많은 지인친척을 중립 활동자로 되게 된다는 기쁨과 소망을 생각하며 활동을 하였다.

Yw에서 쓰기 시작 했으나 한지 2월 1일이 지나자 그곳에서 쓰는 당대의 여학생들 기록
알려진 김철환, 김필재, 고한경, 이태영, 최이호, 박희근 등과 함께 일한바와 그들
일하는 모습을 적어 보았으나. 그중에서 미로 Yw에서 여학생들의 주미로 기록한 바와
한 고영희는 내 생애 첫 번째 여자 친구로 나는 그에게서 부자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할
동안에서의 진정성이 나타나 지냈음을 알려줌을 대하고 이런저런 경험들도 행하는
등이 있어 글을 보충도 보충하였으나. 이로써 내생애 첫 번째 여학생이 되어 그와
결혼하였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보람이었다.

[illegible][illegible]

가장가 자취를 잊고 아내가 2일 전에 다시 나간 것은 감정이 무거워 지기 때문. 나는 다시 한국에서부터 헤어져 (이리에서)의 신부처럼 일을 맡게 되었다.

1975년 12월 24일 아내가 한국에서 헤어져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날. 나는 새로로 33일이 었다. 서울로 입상을 가진 아내와 함께 한 달여 동안을 위해 조양하는 일이 되지 않았다. 2년 2개월 전이 당시 아내와 전부동재의 지지성 병을 받들고 감동하고 있었고, 입술강제와 장수장병으로 인하여 아내와 동생 두 명이 불행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와 동생의 생애를 두는 2년 지지성 병은 입술 강행이었다. 아내의 공상과 감정을 만들어 낸 것은 무엇으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1975년 12월 24일 아내가 한국에서 헤어져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날. 나는 새로로 33일이 었다. 서울로 입상을 가진 아내와 함께 한 달여 동안을 위해 조양하는 일이 되지 않았다. 2년 2개월 전이 당시 아내와 전부동재의 지지성 병을 받들고 감동하고 있었고, 입술강제와 장수장병으로 인하여 아내와 동생 두 명이 불행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와 동생의 생애를 두는 2년 지지성 병은 입술 강행이었다. 아내의 공상과 감정을 만들어 낸 것은 무엇으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장례식에 가서는 두 번 기도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한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다.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기 원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결혼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혼하기 전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은 원천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내가 속으로 패재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나도 내 세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웬걸, 결혼하면 여성은 만년 누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1975년 12월 24일 아내가 한국에서 헤어져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날. 나는 새로로 33일이 었다. 서울로 입상을 가진 아내와 함께 한 달여 동안을 위해 조양하는 일이 되지 않았다. 2년 2개월 전이 당시 아내와 전부동재의 지지성 병을 받들고 감동하고 있었고, 입술강제와 장수장병으로 인하여 아내와 동생 두 명이 불행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와 동생의 생애를 두는 2년 지지성 병은 입술 강행이었다. 아내의 공상과 감정을 만들어 낸 것은 무엇으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1975년 12월 24일 아내가 한국에서 헤어져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날. 나는 새로로 33일이 었다. 서울로 입상을 가진 아내와 함께 한 달여 동안을 위해 조양하는 일이 되지 않았다. 2년 2개월 전이 당시 아내와 전부동재의 지지성 병을 받들고 감동하고 있었고, 입술강제와 장수장병으로 인하여 아내와 동생 두 명이 불행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와 동생의 생애를 두는 2년 지지성 병은 입술 강행이었다. 아내의 공상과 감정을 만들어 낸 것은 무엇으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1975년 12월 24일 아내가 한국에서 헤어져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날. 나는 새로로 33일이 었다. 서울로 입상을 가진 아내와 함께 한 달여 동안을 위해 조양하는 일이 되지 않았다. 2년 2개월 전이 당시 아내와 전부동재의 지지성 병을 받들고 감동하고 있었고, 입술강제와 장수장병으로 인하여 아내와 동생 두 명이 불행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와 동생의 생애를 두는 2년 지지성 병은 입술 강행이었다. 아내의 공상과 감정을 만들어 낸 것은 무엇으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구호를 외치며 주먹 쥔 팔을 치켜드는 것을
멋쩍게 여기는 수줍은 운동원이었다. 그 수줍음을 순간에 날려버린 사건이 1986년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선고공판에서 일어났다.

학원들은 배고픈 학생들에게서 면죄부를 줄라면서 저지른 잘못을 기리려고 했었다. 그러나
고문과 불리종교 기도를 주례하고 되레에 구교양에게 1206월의 실패라고도 되자라는 소망의
우리는 다시금 앞을 향한다. 그러부터 나는 두사람의 면죄 구원을 위하여 주의를 높이 쳐다볼라는
뜻이 되었다.

2007년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애사들과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기약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내내 '북한평화통일 남북대화'의 내츨 진행 상황 등으로 안락이전 미발행자, 동향재향한 이매경 의원 이 그러나 내내 남북통일을 약속한 정세균 대제후 대제후 화합을 약속한 박정호 시위중이던 우리는 그러나 일제에 해인적통을향해 추진했는. 그러나 우리들 '이내' 것 이고 내는 기뻐기 잊은은 이제 그러나 내내 이남 후 입장개는 했는 모양이다.

이 사건은 한 경찰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 사고가 아니라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한 고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된 범죄로서 천인공로할 일이었다. 성고문은 여성피의자들에게 쭉 자행되어 오고 있었고 계속 될 것이라는 데에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사실은 종교인들은 물론 일반시민들, 특히 수녀들이 함께 한 교회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보통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게 되었다. 그리고 9명으로 출발한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 166명의 자원변호인단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 1월 중순 새벽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한 여성민주투사가 박총철 학생의 고문치사사건을 알려주며 자기는 수배중이라 나설 수 없으니 날이 밝으면 남영동에서 열리는 항의집회에서 날더러 성명서를 낭독하라고 했다. 그날 남영동 대교복상 앞까지 갔다.

한민족의 애국열은 솟아오르기를 쓰고 전방들이 무력으로 개척을 해나갈 때 저러 격렬한
항의까지를 했지 '한국'과 '너'의 악하고 정수리를 내리쳐주어야 하리라.
왕후김씨도, 두레박길도 해방운동이 거세어지니 나를 보며 사람들이 내게 의거하
고 있을 줄을 알았다. 나는 북아메리카에서부터 맨 앞에서 싸우다가 자살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보면 나도 집사람이어서 핑계를 대고 뒤로만 숨으려던 한두번이 아니었다. 당시
시위학생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애들은 중학교에서는
'대들이다!'를 비웃음으로 대꾸하며 이별하고 뒤에 가서 웃었다. 기인 민주화 운동의
영신에게 애국열은 그렇게 꽃피워 주었는지 모르겠다.

[illegible]

45171

2. 2014년 12월 31일 현재
의정률 100%로
정산된 것으로
확인됨

이름을 바꿔주면 더 나은 행동으로 살게 된다

1999년에 또 다른 중증화기를 맞아 갑자기 급증한 경색이름 때문에 급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랑의 화살'을 홍보하였다. 또 여성환경 철동기들의 당으로
리제를 공동으로 물에 관한 '여성환경 연대', 여성환경을 더 나은 환경을
으로 하는 우리라 해는 더 시민사회 공동체라는 '한국여성재단'을 창립했고
그리고 같은 해에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생산을 위해 대한아메리칸 대학교의 노비를 권장하는 '공리'라는 이름을
한 것으로 제2기부터는 이들을 위해 바나나를 사서 나눠 먹었다
2008년 12월 25일 한국여성재단을 설립하였다

2008년 12월 2일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황려남'에 대한 나의
 삶은 인생을 두 번 제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고령화시켜 줄 때까지만
 영으로 살고 살아가는 것. 삶은 스스로 허락한 수명을 얻는 제3자의 삶을 살기
 위한 나의 구상이다. 내 70대를 살기 위한 참여적 부호기에 '신로정'을
 내 70대 내게로 옮기겠다. 건강이 허락하면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신로정'을 옮기겠다.

친구들에게는 침묵행동을 너무 열심히 하였으나 이제는 훨씬더 잘 알고
 깨닫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침묵'이란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해방되는 것, 화해하는 것을 하는 것, 마음이 바뀌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침묵'이란 비록 이쪽으로 가지만 마음과 뜻과 몸이 들어맞
 게 하는 것이라든가 지극히 하고 싶은 인생이 비록 그 '침묵'을 추구해서 사는 것이라든가.
 다는 내지 이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을 위하여 못했을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즉 침묵행동을 할 줄을 알면서도 무엇에 잘못해서 사는 것이 고달프기
 만 뒤로 보이면 오랫동안 살아야 하고 지내야 한다.

앞으로도 나에게 그냥 두고 지내줘야 하는 많은 일들이 많을 것이다. 전생이
 해놓은 것들을 내게 되풀이하게 (중복)하고 노력할 것이다. 정서적 통기는
 내게도 고통과 비극을 곁들여 주는데서 비롯되고 공감을 통한 열매에 비로
 인식이 희망이 있다고 한다. 나의 작은 수고와 노력이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
 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다면 믿음은 생을 이룰 때까지 현상으로 드러나
 라고 동경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침묵' 행상하는 데 불씨가 된다.

생각, 행동,
 평행선
 이하

내주변에 있는 친구들중에는 70평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쉬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말하는 '쉬는 권리'란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무
에서 해방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비록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쉬는 권리'라면 비록 어렵고 지겨운 일을 맡겨 놓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든가
만, 지금 비록 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쉬는 권리'를 누리며 사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쉬는 것 외에 다른 쉬는 방법 등 일하기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60평생을 활동권을 살아온 사람은 한창이든 몸으로 뛰며 살아온 것을
기마라며 쉬고 싶고 고령으로 가는 쉬는 방법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닐까. 젊음으로
비록 20년 정도 지내질 수 없는 젊은이들이 각자 있을 것이다. 건강이 허약해지는 것
들을 내는 외면하게 될 수 있다. 365일 용기는 인간의 고통과 비극을 공감하는데
서 비롯되고, 공감을 통한 연대에 바로 인류의 희망이 있겠다 한다. 나의 주
는
... ..
... ..

인쇄하기

자동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RE: 박영숙 원고입니다.

받은 날짜 2011년 05월 11일 14:09
 보낸 사람 임지원<lim_jiwon@naver.com>
 받는 사람 박영숙<urionni@empas.com>

선생님, 씨네 임지원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보내 주신 원고 잘 받아 보았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
 써주신 원고이더군요. 이렇게 마음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선생님께서 원고 쓸 수 없게 되면 이야기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 하신 것이
 아무래도 선생님 마음에 흡족한 원고는 아니었나 봅니다. 제 짐작이 맞는지요?
 원고를 살펴 보니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마음에 걸려 하셨을지 대충 짐작이 되기는 하
 는데
 간단하게 편집자 의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드린 원고가 어떤 사안에 대한 주장을 나타내는 글이 아니라 필자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어색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필자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일인데요. 우리 지금 원고가 그런 부분이 약간 부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선생님, 저는 부끄럽지만 윤정숙 선생님에게 선생님을 추천 받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필자로 모시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
 면서
 선생님께서 얼마나 업적이 많은 분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칼럼이 아마도 제 또래, 혹은 저보다 더 어린 이십대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게
 될 텐데요.
 선생님을 처음 만날 독자들을 위해서 우리 원고에 선생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사 중에 이런 대목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학창 시절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개척자인 박에스터YWCA 고문이
 저의 멘토였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남편인 안병무 교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준 멘토였고, 고 김
 대중 대통령은 정치인 박영숙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멘토는 바로 유엔난민고등
 판무관을 지낸 일본의 오가타 사다코입니다."

선생님을 소개하는 글을 어떻게 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위의 멘토분들 중 한 분의 이야
 기를
 들려 주시면서 선생님의 활동을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선생님 인생을
 이끌어온 **선생님**
 무엇인지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최근의 활동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추도사를 읽는 장면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면
 정치인 박영숙의 과거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과거 여성들의 지위와 선생님이
 펼친 활동, 그리고 그 이유 등을
 유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선생님을 한 번 설명하시
 고 그 후에 네팔 여행 이야기를 풀면서
 현재 하고 계시는 설명을 해 주시면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 싶다"는 우리 원고의 주제를
 더욱 짜임새 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관련 기사 찾아 보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어느 것 하나 거
저 얻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내가 지금 잘 살아 놓아야 후배들이 또 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고 나가게 되면 아마도 더 많은 후배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
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 같은 후배들이 선생님 이야기 듣고 더 많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살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번 살펴 보시고요.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하기

자동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덧,

받은 날짜	2011년 05월 11일 14:20
보낸 사람	임지원<lim_jiwon@naver.com>
받는 사람	박영숙<urionni@empas.com>

선생님, 분량이 좀 많아지는 것은 나중에 조금 다들으면 되니까요.
일단 편한게 이야기 풀어 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살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997년 IBC가 한국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권 획득을 허가받았을 때, '대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방송권 획득을 허가할 때, '대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방송권 획득을 허가할 때, '대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말에 대한방송이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권 획득을 허가받았을 때, '대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방송권 획득을 허가할 때, '대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1942년 12월 12일 생으로 1991년 63세의 나이로 유년시절 고종실업
관으로 10년간 근무한 후 방송계로 진출하였다. 그는 방송계로 진출한 후, 2년 동안
직무수행에 있어 방송계로 진출한 후, 2년 동안 직무수행에 있어 방송계로 진출한 후, 2년 동안

대한방송이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권 획득을 허가받았을 때, '대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방송권 획득을 허가할 때, '대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대한방송이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권 획득을 허가받았을 때, '대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방송권 획득을 허가할 때, '대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진정이라도 수용해줄수 없는 존재가 되며 그들은 비방인의 말로 회색을 만들어 내고 나들
이로, 밤바다로 주제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지대한능력도 필요치 않은 제로인생의 개척으로 나들
주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그런 인생으로 할수있어야 한다 모았다.

이제 경제위기는 602명이란 학문적 뜻밖에도 이중의 33%는 여성이다.
(이)으로 주제를 하여, 심층예상을 위한 단계를 밟았다. 살려본바에 의하면 이들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못하고 있다. 지난 40년간의 우리
나선예상중의 비관적 변화향에 비하면 더욱한 '노년'의 추락적 지로움을
이탈예상중에서 전후반대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더더욱한 이의 문제는 대안으로 답하듯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된
2012년의 총선거 대선을 앞두고 우리 예상중의 대공화 세력이자, 호불호의
에서 보여준 세상을 바꿀수 있을 80%의 불충만감을 이 2012년 선거시점을 전
것이다. 이제 내전주목을 더더욱한 예상중의 이변을 주도할 것인가? 변화된
소용돌이치기시점에서 100개 강대국비율 문제는 어떻게 풀것인가? 등이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다.

가장 '살~립'하게 예상대로 2012'가 '나를 살려라! 36'를 살리는
예상'이라는 말이 곧 내세운 예상들과 생각들이 합쳐지는 36.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36'를 살리기 위해 예상들이 함께 행동하는 캠페인이 준비중에
있을것을 다짐이다.

내전이라는 친구를 통해 70명생명을 더욱 열심히 살았으며 이제는 될
전원가 아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존재하니까 단다는
것은 법칙으로 다다. 심층전제한 의무의 대방출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 이것이 내전이라는 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내전 비록
이제 시계와 안습함만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더라 내전 지금 살고 있는것으로
심층전제를 우리면서 사는 것이다. 다만 내전 함양을 위해 다르게 할방향을 크게
리리 못하는것이 문제라만 문제를 풀이다.

결국인 후반기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려만 현실주의 젊은이들 준비되어야 한다고
인간관계방이나 자립적 호혜대화를 더더욱더 불꽃 놀며. 위해. 줄이기 위한
수단도 필요하기 준비되고 있해독이냐 한다. 한때 내전 하트장들을 내어놓고
잠에 들어갔을 생계를 위해서도 중요한것도 내전 나는 시간을 쪼개며서 줄일
재작을 마련하기 못했다는 것이다.

36'가-통계는 비로 리인위 고층과 비극을 공감한데서 비롯하며 공감의
연대에 인류의 희망이 있다 한다. 그냥 두고 지내할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내전 짝이 될것이다. 전강이 허락해준 2012년 12월 12일 12시 12분
함정이다 이것이 생을 내전과 함께 행하여 살아가는 내전 될
전제 행이다

박영숙_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평생을 여성운동, 민주화 운동, 환경운동에 헌신했다. 현재는 (재)살림이 이사장으로 여성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에스터와 함께 시작한 60년 활동가의 길

지난 60년 동안 여성운동, 민주화 운동, 환경운동 등의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으며 줄곧 활동가로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활동가로 살게 된 것은 1951년 6.25 당시 부산 피난지에 임시로 개설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 YWCA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화여자대학의 대학 YWCA는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중 속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었다. 열아홉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나는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때가 아마도 내가 활동가의 삶을 시작한 첫 순간이 아닐까 싶다.

당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법개정운동이 태동하고 있을 때였다. 그 시절에도 아들 먼저가 아니라 나이순대로 밥을 퍼주던 부모님 덕에 나는 성차별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장손이라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여성운동 활동가가 된 것이 80세가 다 된 지금까지 활동가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때의 충격은 1990년 제13대 국회에서 가족법이 개정되고, 여성들의 마지막 족쇄였던 호주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이 2005년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계속되었다.

학생 시절의 나는 학교공부는 뒷전으로 한 채, 전쟁고아들과 미망인들을 돕기 위해, 방학 때는 농촌계몽활동을 위해, 주말에는 YWCA 중고등학생 클럽 지도자 활동을 위해, 항상 바쁘게 뛰어다녔다. 이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는 동안 내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삶에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는 것이 '황소'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한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자 YWCA 실무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시민사회운동의 활동가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 행운을 누렸다.

YWCA에서 내가 누린 행운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는 당대의 여성운동가로 알려진 김활란, 김필례, 고헌경, 이태영, 최이순, 박에스터 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미국 YWCA에서 온 준비된 지도자 박에스터 고문총무는 내 생애 첫 멘토였다. 나는 그에게 부지런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활동가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저런 명절이나 기념일을 챙기는 것 등 삶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아직도 매사에 빈틈이 없던 그를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는 내 인

생의 어떤 '모델'이었다.

박에스터 고문총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지도력 양성이었다. 그는 나에게 많은 기회를 마련해 주며 서른두 살의 젊은 나이에 내가 50년 역사의 YWCA연합회의 총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나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YWCA 협의회의에 총무 재임 기간 동안 두 번 참가했는데, 총무단원이 삼십대인 경우는 홍콩과 한국 두 나라뿐이었다. YWCA는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회원의 운동, 국제적운동체임을 표방하며 우리 사회의 여타 여성운동체와는 다른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YWCA와 함께 한 시간은 YWCA의 이후 활동을 감안할 때 '온실 속의 화초'로 비유할 수 있지만, 내가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다.

조직지침기에서 활동한

안병무를 만나고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다

별난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낄씨도 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며 눈바람이 부는 1967년 12월 29일, 나는 서른일곱의 나이에 민중신학자 안병무와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다. YWCA가 명동성당 건너편에 연합회 건물을 짓고 있을 때였다. 다음해 가을, 회관 준공식 때 내 몸은 만삭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YWCA의 일을 접고 계획에 없었던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살림살이를 싫어하는 편이 아니라 가사일도 재미있었지만 다시 일을 하고 싶은 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다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의 사무처장 일을 맡게 되었다.

하나의 단체인 YWCA와는 달리 여러 단체의 협의기구인 여협의 일은 내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여러 단체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여협은 군부독재의 지지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압축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한 여성노동자 문제가 분출하고 있었으며, 반 환경적인 산업정책의 폐해들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여협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유엔 '여성의 해'를 앞두고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국가시책들을 살피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던 1975년에 나는 다시 상근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유는 또 육아문제였다. 아이하고는 타협이 불가능했다. 어른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진지한 목소리로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니 둘 중에 누가 일을 접는 것이 합리적이겠냐고 물었다. 일방적인 통고였다면 나 역시 여성운동가라 결론이 달리 났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내가 일을 접겠다고 했다. 이렇게 내 유급 활동가로서의 생은 끝이 나고, 이후는 건무급 활동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장례식에 가서는 두 번 기도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자기 일을 충실하기 원하는 여성들에게 결혼은 쉽지 않은 문제다. 결혼 전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으로 체제를 불렀던 일이 기억난다. 나도 내 세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걸, 여성은 결혼을 하면 만년 누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남편과 나는 결혼 초기 3개월 동안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 관여할 수 있는 사안과 범위 그리고 무관심의 정도를 합의했다. 우리는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그 결혼방정식을 나름대로 지켰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멘토로서 지금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두 번이나 교수직에서 해직되고 결국은 1976년 3월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쓴 장정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일을 겪기도 하고, 구치소를 들락거리며 옥바라지를 하고, 재판이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때까지 상상도 해 보지 못한 낯선 삶을 살면서 나는 이전과는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 남편을 보낸 아내, 그리고 수많은 구속자 가족들과 거리에서 고난을 겪으며 나는 비로소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의에 저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투사가 되었고 사람들의 고통에 연대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1976년 12월 29일, 10주년 결혼기념일에 풀려난 안병무는 나에게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었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웃겼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뤄낸 절반의 힘, 여성들

우리나라의 긴 민주화운동의 여정에는 물론 여성들도 늘 함께 있었다. 그 시대의 깨어있는 여성들은 여성노동자 생존권투쟁, KBS시청료거부운동, 성고문정권퇴진운동, 고문추방운동, 최루탄추방운동 등을 벌이며 최루탄 가스의 고통과 기동경찰대의 폭력에 맞서며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 대열에 나도 함께 있었다.

나는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구호를 외치며 팔을 치켜드는 것을 멋쩍게 여기는 수줍은 운동원이었다. 그런데 그 수줍음을 순간에 날려버린 것이 바로 1986년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선고공판이다. 그날 많은 단체의 회원들은 법원 앞마당에서 연좌시위를 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고문자 문귀동은 기소가 유예되고 피해자 권양에게 1년 6월의 실형선고가 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이성을 잃었다. 그 후 나는 누구보다 먼저 구호를 외치고 주먹을 높이 치켜 올리는 투사가 되었다.

2007년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여성들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당시를 기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내가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이 나를 진성운동가로 만들었다고 고백하자, 동석해 있던 이미경 의원이 그때 내가 법원 앞을 막아서던 정리의 따귀를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시위 중이던 우리는 그때 일제히 법원 정문을 돌파해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리들이 우리를 막아선 것이다. 나는 까맣게 잊은 일인데 그때 내가 이성을 잃기는 했던 모양이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한 경찰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성의 수치심을 고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경찰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천인공로할 범죄였다. 이 사실은 종교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특히 수녀들이 함께 한 교회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사태를 관망만 하던 보통사람들도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9명으로 출발한 이 사건의 변호인단은 후에 166명의 자원변호인단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1987년 1월 중순, 새벽에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 보니 한 여성 민주투사가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사건을 알려 주며, 자기는 수배중이라 나설 수 없으니 날이 밝으면 남영동에서 열리는 집회에 나가 날더러 성명서를 낭독해 달라고 했다. 그날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삼베 수건을 쓰고 전경들이 무력으로 집회를 해산 시킬 때까지 격렬한 항의시위를 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듯이 거리에서 사는 나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려운 일을 맡겨 왔다. 나는 본의 아니게 많은 사건에서 맨 앞에 서는 때가 많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나도 겁쟁이어서 핑계를 대고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시위학생들이 겁을 삼키기 위해 '어머니'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여성운동가들은 '애들아'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어려운 일이라고 피해가지 않았다. 긴긴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큰 몫을 해낼 수 있었다.

흔히 말하길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남성의 역사(History)는 보여도 여성의 역사(Herstory)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들의 이야기와 족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몰인정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 사진전에서는 당시 활약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기동경찰대원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사진조차 남자가 달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동경찰대원에게 평화의 상징인 꽃을 달아 주는 것은 사실 교회여성들의 작품이었다. 못 배운 수컷들에게 '서서 오줌도 못 싸는 것들이!'라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1988년 말부터는 제도정치권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 정당의 부총재로, 당대표권 한대행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당 쪽에서 여성계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수석 부회장이던 내가 나서게 되었다. 정치에 문외한이었지만 내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정치활동을 했다.

내 목표는 일단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탁아법의 제정이었다. 그리고 환경업무부서의 격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주력하여 목표를 달성해냈다. 가족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던 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골프장 건설 저지, 반 환경 개발 저지, 산재 피해자 보호, 민주인사 석방 등을 위한 활동을 했다. 동료 의원들은 나를 보고 국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할 정도였다. 준비 없이 뛰어든 정치 풋내기가 원내 활동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김대중 당 총재라는 정치 멘토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1993년, 정치권을 떠나기로 결심한 나는 환갑의 나이에 국제환경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하라는 남편 안병무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 귀국한 후 나는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복귀하면서 시민운동가의 자리를 되찾았다. 지금은 연구소를 떠났지만 이 나라 환경활동가로서의 내 역할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의무를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한 제1기의 나의 삶이다.

제1기 2기의 삶은 물론 다르지만
환경운동가로서는

생을 마칠 때까지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 싶다

요즘 흔히 100세 시대를 맞았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 제1기의 인생은 의무를 다하는 삶으로, 후반부 제2기의 인생은 보람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나 역시 제2기의 인생을 맞아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일거리를
해줄까 말까
의미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1997년에는 IMF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갑자기 급증한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사랑의 친구들'을 출범했다. 또 여성 환경활동가들의 당면 과제를 공동으로 풀기 위한 '여성환경연대', 여성단체들의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공익재단 '한국여성재단'을 창립했다. 그리고 가난한 아시아 여성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친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하며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는 '공정무역' 사업을 시작한 것도 제2기의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 내가 찾아 나선 일이다.

2008년 12월 말,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나는 이제 남은 인

살을 누가 제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고용해서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결심했다. 보너스로 허락된 수명^도 같은 제3기의 삶을 살기 위한 생각이 다. 내가 70대를 살기 시작한 참여정부 초기에 '사오정 오륙도' 바람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건강이 허락하고 의지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전 국민 100세 시대가 오자 금세 수그러들고 이제 모두 길어진 수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나 역시 같은 고민을 하던 차에 일흔이 넘어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산 오가다 사다꼬라는 여성을 책으로 만나게 되었다.

일본의 오가다 사다꼬는 1991년 63세의 나이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된 사람이다.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여성 특유의 현장주의 원칙으로,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고 지구를 몇 십 바퀴나 돌며 세계의 난민들을 구하고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불렸다. 판무관 직에서 떠난 후에도 중요한 국제회의의 의장으로 활약하며 지금도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국제무대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누구나가 오가다 사다꼬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겠다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지금 내가 나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 (재)살림이 활동은 여성활동가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사업의 출범을 지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공간을 '살림터'라고 한다.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활동은 빈곤한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1일에서 18일까지, 7박 8일 동안 네 팔에 다녀왔다. 히말라야를 트래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네팔의 여성들과 희망을 일구어 내는 활동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한 여행이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잔인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약자인 여성의 빈곤은 여러 가지 가중된 어려움을 겪는다. 하필 왜 네팔이냐고 묻는다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문제가 많은데 왜 다른 나라의 일에 나서냐고 한다면 우리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 기억으로 우리 여성단체들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이 되기 전까지 다른 나라의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규모 13위의 나리이다. 진작 어려운 이웃나라의 여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했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네팔의 10대 미망인들이다. 네팔에서는 딸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일찍 시집을 보내는 관습이 있다. 그 때문에 10대 미망인의 비율이 높다. 네팔 여성이 미망인이 되면 풍습 때문에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존재가 되며, 미망인의 표시로 언제나 흰옷을 입고, 나들이나 밥 먹는 일까지 규제를 받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자립능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와 관습의 개혁도 필요하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이뤄낸 발전 내용과 그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네팔

여성들에게 전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외면할 수 없는 과제는 내년으로 다가온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성운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세상을 바꾸는 80퍼센트의 보통사람들을 어떻게 정치세력화 할 것인가? 또 차기 대권 주자의 경우 여성정치인이면 무조건 지지해도 되는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운동권에도 아직 남아있는 뿌리 깊은 성차별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너무나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여성계에서는 가칭 '살~림 정치 여성액션 2012' 모임을 만들어 '나라를 살리는 정치! 정치를 살리는 여성'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과 약자들을 배려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친구들 중에는 내게 칠십 평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쉴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쉴 권리'란 단순히 열심히 사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보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것이 '쉴 권리'라면, 비록 아직도 시계 알람을 맞춰 놓고 잠이 들어야 하는 삶이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 '쉴 권리'를 누리며 사는 삶이다. 다만 내가 이렇게 쉬는 것 외에 다른 쉬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앞으로도 나에게 그냥 두고 지나칠 수만은 없는 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의와 용기는 타인의 고통과 비극을 공감하는데서 비롯되고, 공감을 통한 연대에 바로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 나의 이런 노력이 인류의 희망을 이루어 내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커다란 기쁨이다. 그리고 이것이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쉴 권리' 행사이기도 할 것이다.

36억의 용기는 타인의 고통과 비극을 공감하는 데서 비롯되며, 공감을 통해
에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 생애, 평등, 평화 등 위해 할려고 하는 내게,
앞으로도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권리 행사이기도 할 것이다.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

행위를 리듬하기 위한

박영숙 (재) 살림이 이사장

내가 60년 동안 여성운동,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시민사회운동에 줄곧 몸담게 된 것은 1951년 6.25 전쟁 당시 부산 피난지에 개설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면서 대학 YWCA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학교의 학생회를 겸하고 있었던 대학 YWCA가 전란이 남긴 상흔에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참여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당시 태동하고 있던 가족법개정운동을 접하면서 개화된 부모의 덕으로 내가 일찍이 깨닫지 못했던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문제를 깨우치며 여성운동의 활동가가 된 것이 80세가 다 된 지금까지 활동가로 살게 하고 있다. 단지 장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갓 태어난 아기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호주가 된다는 사실에 황당해했던 충격은 1990년 제13대 국회에서 가족법이 개정되고 여성들에게 마지막 족쇄로 남아있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2005년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이어졌다.

학교공부는 뒷전으로 한 채 전쟁고아들과 미망인들을 돕는다고, 방학 때는 농촌계몽활동으로, 주말에는 YWCA의 중고등학생 클럽 지도자로 동분서주하느라 공부를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후유증이 사는 동안 아쉬움으로 남았다. 삶에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미리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활동한 결과로 얻어진 '황소'라는 별명 덕에 학교를 졸업하자 YWCA의 실무자로 선택되었고 이곳에서 일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활동가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 큰 행운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허락된 행운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당대의 여성운동가로 알려진 김활란, 김필례, 고황경, 이태영, 최이순, 박에스터 등과 대면하며 일하는 가운데 그들의 지도력의 영향을 거침없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YWCA에서 파송된 완벽하게 준비된 지도자였던 박에스터 고문총무는 내 생애 최초의 멘토로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른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 나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활동가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것을 전수받았다. 음식을 장만하고 지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나 화초를 가꾸는 일이나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명절을 챙기는 일은 그에게서 배운 것이다. 빈틈이 없었던 그가 지닌 덕목을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는 내 생의 모델이었다.

박에스터 고문총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일 중 하나가 여성의 지도력 양성이었다. 나도 그가 정성들여 키운 일꾼 중의 하나이다. 중고등학생클럽지도자일 때 매주 모이는 모임에 회원들보다 먼저 가서 회의를 준비하는 것. 캠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산을 올라야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점들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나를 YWCA의 청년부 간사, 중고등학생부 간사, 대학생부 간사를 거쳐 50년 역사를 눈앞에 둔 YWCA연합회의 총무가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 때 내 나이 32세였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YWCA 협의회에 총무 재임기간동안 두 번 참가하였다. 관록 있는 여러 나라 YWCA 총무단원 중에 30대 약관의 총무는 홍콩과 한국뿐이었다. 젊다는 콤플렉스에 철없이 젖어 있던 기억이 난다.

YWCA는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회원의 운동, 국제적운동체임을 표방하며 독자적인 존재양

식을 견지하고 있는 데서 우리 사회의 여타 여성운동체와 다른 분위기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YWCA와 함께 한 여성운동의 토막은 그 후의 활동을 감안할 때 온실 속의 화초로 비유될 수 있다.

별난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날씨도 별나다던 사람들의 말처럼 눈바람이 부는 1967년 12월 29일 37세에서 3일 모자라는 나이에 나는 독신을 주장하는 안병무와 늦깎이 결혼을 했다. YWCA가 명동성당 건너편에 연합회 건물을 짓고 있을 때였다. 다음해 가을 회관 준공식 때 나는 만삭의 몸이었다.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했던가. 애를 낳고 보니 마음먹었던 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았다. YWCA일을 접고 애를 돌보며 계획에 없었던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음식 만들거나 살림살이를 즐기는 편이어서 가사가 지겨운 것은 아니었지만 일터에 다시 나가고 싶은 갈망이 목까지 차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얻은 일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직이었다.

개체단체였던 YWCA와 달리 다양한 목적을 지닌 여러 단체의 협의기구인 여협의 일은 나에게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의 장이었다. 서로 다른 입장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정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여협은 군부독재의 집권연장을 위한 지지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압축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한 여성노동자 문제가 분출되고 반환경적인 산업정책에 의한 폐해들을 그냥 볼 수만은 없는 처지에서 여협의 공적인 입장 표명이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75년 유엔 여성의 해를 앞두고 있는 4년 동안 국제회의에 대비하며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국가정책들을 살피면서 일은 지금부터다라고 생각하게 된 시기에 나는 다시 상근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유는 역시 육아문제였다. 아이하고는 타협이 불가능했다. 어른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엄숙한 어조로 얘기 좀 하자라는 것이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니 둘 중의 한 사람이 일을 접어야 할 터인데 누가 접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냐고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일방적인 통고였다면 결론은 달리 났을 것이다. 나도 여성운동가였으니까. 두말없이 내가 접겠다고 했다. 여기서 나의 유급활동가로서의 생은 끝났다. 이 끝은 이후 긴 무급활동가로서의 삶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장례식에 가서는 두 번 기도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한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다.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기 원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결혼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혼하기 전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내가 속으로 패재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나도 내 세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웬걸, 결혼하면 여성은 만년 누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결혼 초기 3개월간을 서로 탐색하는 기간으로 두었다. 그 결과 각기 평생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범위와 간섭, 그리고 무관심의 정도를 합의하였다. 우리는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그 결혼방정식을 나름대로 지켰다. 나는 그의 남다른 생활 소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애썼고 그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나의 생애 가장 중요한 멘토로서 그가 없는 지금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민중신학자인 안병무는 두 번이나 교수직에서 해직되고 1976년 3월 명동성당에서의 민주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이 일로 해서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무지막지한 장정

들이 한밤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해서 겁을 먹은 적도 있고, 옥바라지를 하느라 구치소를 드나들기도 하고, 재판을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하려고 온갖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낯선 삶을 살면서 나에게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아들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들, 남편을 보낸 아내들, 식구들인 누나들, 그리고 친지들과 같은 수많은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비로소 나는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불의에 저항하는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1976년 12월 29일 결혼 10주년이 되는 날에 감옥에서 풀려난 안병무는 변해있는 나를 두고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웃겼다.

진 민주화운동의 장정에 여성들도 함께 오른다. 여성노동자 생존권투쟁, KBS시청료거부운동, 성고문정권퇴진운동, 고문추방운동, 최루탄추방운동 등을 위해 그 시대에 깨어있는 여성들은 눈물, 콧물 주체할 수 없게 하는 최루탄 가스의 고통과 기동경찰대의 폭력행사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 대열에 나도 있었다.

나는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구호를 외치며 주먹 전 팔을 치켜드는 것을 멍쩍게 여기는 수줍은 운동원이었다. 그 수줍음을 순간에 날려버린 사건이 1986년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선고공판에서 일어났다. 고문자인 문귀동은 기소유예되고 피해자인 권양에게는 1년 6월의 실형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법원 앞마당에서 연좌사위를 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전달된 순간에 우리는 이성을 잃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먼저 구호를 목청껏 외치고 주먹을 하늘높이 치켜 올리는 투사가 되었다.

우리들은 일제히 법원 정문을 향해 돌진해 법원에 들어가려고 했다. 정리들이 우리를 막아선 것은 불문가지이다. 2007년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여성들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그 당시의 기억들을 살려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부천서 성고문사건이 나를 진성운동가로 만들었다고 고백하자 동석하고 있던 이미경 의원이 그때 법원 앞을 막아섰던 정리의 따귀를 내가 때렸다고 했다. 나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성을 잃기는 했던 모양이다.

이 사건은 한 경찰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 사고가 아니라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한 고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된 범죄로서 천인공로할 일이었다. 성고문은 여성피의자들에게 쭉 자행되어 오고 있었고 계속 될 것이라는 데에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사실은 종교인들은 물론 일반시민들, 특히 수녀들이 함께 한 교회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보통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게 되었다. 그리고 9명으로 출발한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 166명의 자원변호인단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 1월 중순 새벽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한 여성민주투사가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사건을 알려주며 자기는 수배중이라 나설 수 없으니 날이 밝으면 남영동에서 열리는 항의집회에서 날더러 성명서를 낭독하라고 했다. 그날 아침 여성들은 삼베 수건을 쓰고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공권력이 강제해산시킬 때까지 격렬한 항의시위를 예정대로 마쳤다. '타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사건이다.

사람들이 내가 더 일을 것도 거칠 것도 없는 듯 길거리에서 사는 것을 보며 무슨 일이나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일이 터지면 나를 찾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래서 많은 사건 대응에 앞장서는 일이 이어졌다. 알고 보면 나도 겁쟁이어서 핑계를 내세워 피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시위학생들이 자신의 겁을 삭이기 위해 '어머니!'를 외치며 용기를 북돋웠던 것처럼 우리들은 '애들아'를 마음속에 되뇌이며 어렵다고 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여성들이 큰 몫을 해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남성의 역사(History)는 있어도 여성의 역사(Herstory)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들 한다. 우리 여성들이 우리의 이야기와 족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남성들의 물성인지성을 들먹거리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상식선을 넘어서야 하는 민주화운동권에서마저 그들의 역사기록에서 여성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사진전에 전시된 기록사진에서 그 당시 활약한 여성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기동경찰대원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사진조차 남자의 것으로 게시되어 있었다. 시위학생들과 대치하고 있는 기동경찰대원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꽃을 달아주는 행사는 교회여성들의 작품이었다. 하늘의 반을 떠받치고 있는 힘은 여성의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여성운동의 종착점은 아직 아득하다. 못 배운 수컷들이 '서서 오중도 못싸는 것들이!'라고 내뿜는 막말을 들어가면서도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8년 말부터 얼마동안 제도정치권에 몸담은 일이 있다. 한 정당의 부총재로,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당 쪽에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여성계에게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와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수석부회장이던 내가 지목된 것이다. 정치에 문외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할 여유도 없이 뛰어들게 되어 나는 내 방식대로 수년간의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탁아법 제정이 우선 목표였다. 그리고 환경업무부서의 격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주력하여 목표를 달성해냈다. 가족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던 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힘을 기울인 부분은 골프장 건설 저지, 반 환경 개발 저지, 산재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사활동, 입법활동, 그리고 민주인사 석방운동 등이었다. 이를 지켜본 동료 의원들이 나를 두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속에서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나의 정치활동은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준비 없이 참여하게 되어 자기가 알아야 할 자리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정치 풋내기를 원내활동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서 선발되는 자리까지 끌어올려준 것은 김대중 당 총재라는 정치멘토였다.

나는 1993년 국제환경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정치권에서 벗어났다. 귀국한 후 떠나기 전에 일했던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복귀함으로써 시민운동가의 자질을 되찾았고 지금은 연구소는 떠났지만 이 나라의 환경인으로서의 역할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의무를 다하면서 산 제1기의 나의 삶이다.

오늘날 우리는 100세 인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의 제1기의 삶은 의무를 다하는 삶으로, 후반부의 제2기는 보람을 찾아 사는 것이 이상이라고 한다. 나의 제2기의 삶은 물론 혼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보람 있는 일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의미 있게 추진한 일들이다.

1997년 IMF라는 금융위기사태를 맞아 급증한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사랑의 친구들', 여성환경인들의 당면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내기 위해 조직한 "여성환경연대", 여성단체들의 재정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을 창립한 일, 그리고 가난한 아시아 여성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친생태적인 생산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스토리가 있는 윤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는 공정무역을 시작한 것 등이 내가 찾아 나선, 나의 보람을 찾아 활동한 내용이다.

2008년 12월 말에 한국여성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누가 제공하는 일거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고용해서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이것은 내게 보너스로 허락된 수명을 사는 제3기의 삶의 구상이다. 내가 70대를 살기 시작한 참여정부 초기에 불어 닥친 '사오정 오륙도' 바람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건강이 허락되고 자기의지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바람은 바로 불거진 고령화 문제로 꼬리를 감추게 되고 사람들은 길어진 수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같은 고민을 하던 중에 70세를 넘어서 꽃피운 인생을 산 사람을 책을 통해서나마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그는 오가다 사다꼬라고 하는 일본 여성으로 1991년 63세의 나이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되어 10년 동안 현장주의 원칙에 의거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고 지구를 몇 십 번이나 돌면서 세계 난민들을 구해낸,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판무관 직에서 떠난 후에도 중요한 국제회의의 의장으로 활약하는가 하면 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국제무대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가 국제인으로서 당당하게 현역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일찍이 그 소양을 철저하게 다진 데에 있다. 누구나가 오가다 사다꼬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사는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나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 일은 여성활동가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출범을 지원하는 일이다. 그 공간을 '살림터'라고 하고 있다.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새로운 일거리는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에 준비 작업에 들어간 또 다른 일은 빈곤한 아시아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대활동이다. 지난 4월 11~18일까지 7박8일 간 네 팔에 다녀왔다. 히말라야를 트래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그 나라 여성들과 더 불어 희망을 일궈내는 활동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한 여행이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잔인한 것이다. 빈곤문제 중에서도 여성의 빈곤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약자인 그들에게 가중된 여러 가지 현상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왜 네팔이냐고 한다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이다. 국내문제를 제쳐놓은 채 웬 다른 나라냐고 할 수도 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의 가입국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여성단체들도 외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3위의 나리이다. 우리는 벌써 어려운 이웃나라 여성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야 했다.

내가 특별히 관심하는 네팔 여성은 10대 미망인들이다. 그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조건이 비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처참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딸들을 가진 그곳 부모들이 딸들을 시집 보내기 전까지 보호해야 하는 유별난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일찍 시집을 보내는 관습 때문에 10대 미망인이 생겨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그 나라의 풍습으로 인해 미망인은 시집

에서도 인정에서도 수용해줄 수 없는 존재가 되며 그들은 미망인의 표시로 흰옷을 입어야 하고 나들이도, 밥 먹는 일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삶을 긴 여생동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자립능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와 관습의 개혁도 따라주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그 나라 여성운동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나라 국회의석 수는 602명이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이 중의 33%는 여성이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싱글여성을 위한 단체들도 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들의 역할이 사회변화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40년 간의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발전과 정치참여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축적된 지도력을 내팔여성들에게 전수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또 하나 외면할 수 없는 과제는 내년으로 다가온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여성운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80%의 보통사람들을 어떻게 정치세력화 할 것인가? 차기 대권주자들을 떠올릴 때 여성정치인이면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운동권에도 뿌리 깊은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등이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다.

가칭 '살~림 정치 여성액션 2012'가 '나라를 살리는 정치! 정치를 살리는 여성'이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여성들과 약자들이 갈망하는 정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정책을 열기 위해 여성들이 함께 행동하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 곁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70평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쉴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단순한 존재가 아닌 산다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니다. 쉴 권리란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아직 시계에 알람을 설정해야 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쉴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다만 내가 젊었을 때 다르게 쉴 방법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뿐이다.

길어진 후반부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려면 전반부의 삶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망이나 재정적 노후대책과 건강은 물론 놀며, 쉬며, 즐기기를 위한 수단도 젊어서 준비하고 익혀두어야 한다. 한때 하던 일을 내놓고 집에 들어앉을 생각을 하면서 절감한 것은 내가 시간을 즐기면서 죽일 재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정의와 용기는 타인의 고통과 비극을 공감하는데서 비롯되며 공감의 연대에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내게 다가올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쉴 권리 행사가 될 것이다.

Himal

42147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

박영숙 (재) 살림이 이사장

나는 지난 4월 28일~30일까지 2박3일 동안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바닷가에 여성교육문화공간으로 마련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개최된 '2011 여성회의'에 다녀왔다. 이 회의는 교보생명의 지원으로 한국여성재단이 '여성운동, 새로운 전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성운동의 활동가들과 여성문제연구자들을 함께 불러모은 자리였다.

여성운동의 미래를 위한 열린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열기는 주최 측의 예상을 깨고 120명을 위해 준비한 회의에 180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들은 각기 하고 있는 활동들도 다양하고 2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나이테도 달랐다. 참가자들은 익히 알려진 단체들,形形色색의 새로 출범한 부문별 운동체들, 전문연구기관들 그리고 대학들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성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여성주의(성평등 주장)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의가 목표한 것은 지난 30~40년간의 여성운동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여성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으로 여성운동의 새 길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회의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진솔한 평가에 귀 기울여보면 서로 교류하면서 배운 것도 많지만 힘이 되었던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연대하면 힘이 배가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함께 소망한 것은 어떤 형태로나 이런 회의가 앞으로도 열려서 여성운동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동지를 얻었다는 뿌듯한 느낌을 안고 일터로 향하는 뒷모습들이 덜 외로워 보였다.

80세를 바라보는 내가 그리고 일주일 전에 체력을 요구하는 네팔여행의 여독을 풀 새 없이 7박8일간의 공백으로 쌓인 일터와 집안의 일로 지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하면 받게 되는 나이대접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 회의에 참가한 동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은 데서 비롯된 배우고,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욕구의 발로로 여겨진다.

내가 회의에 참가한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1975년 유엔 여성의 해와 1995년 유엔이 개최한 북경여성회의 참가를 위한 준비회의 이후 오랜만에 열리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연석 회의로 오늘의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총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내년으로 다가온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성운동은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푸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나에게 주어진 말하는 기회는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는 것이었다. 7분 내에 끝내야 하는 말에 답을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내가 선택한 것은 회의 기간에 회자되기를 바라는 두 개의 화두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첫째 화두는 앞으로의 여성운동은 지금까지 운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특별한 20%에 더해 80%의 평범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운동의 롱 테일(Long Tail) 법칙의 시대

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롱 테일 법칙이란,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경제성장의 <파레토 법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평범한 80%가 주도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여성운동의 우선과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80%의 힘을 견인해 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앞서 경험했다. 2008년 5월 그때까지 어른들이 보호해주어야 하는 운동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10대 소녀들이 먹을거리와 교육환경문제를 주체적으로 제기하며 커든 촛불이 유모차 엄마들, 하이힐 직장여성들과 시민들을 뭉치게 하였으며 운동가들,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을 광장으로 불러냈는가 하면 미국 언론과 국제여론까지도 움직이게 하고 대통령이 겁을 먹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을 묵살하는 국가권력에 항거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환기시키고 삶의 조건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지향점의 개혁을 일궈낸 새로운 정치와 운동의 주체들이 되었다. 권력싸움의 정치를 시민정치, 가치정치, 생활정치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촛불 여성들이 세력화(empowerment)되는 것이 여성운동의 롱 테일 시대가 열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기성여성단체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당시 유모차 엄마들이 연행되고 구속될 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처럼 나서주지 못한 것, 그들이 세력화되도록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5월 3일자 신문에서 뒤늦게나마 비정당 시민정치운동단체인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입건된 시민 1476명의 공소취소와 사면 복권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으로 '촛불 시민 구출大作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반갑다. 서명에 동참하려면 (mycountry21.net/candle.php)로 가면 된다고 한다.

또 하나의 화두는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완전 단절한 데서 비롯된 여성운동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운동의 무력화 현상을 주시하면서 2012년의 양대선거에서의 여성운동의 대응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국제적 추세이기도 한 민주사회에서의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시민이 대등한 관계로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치)체계가 깡그리 무시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운동은 근본적이며 총체적인 재편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나의 변화는 시민운동이 지금까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정치행동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지난 3월 27일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가 하나의 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정치가 사회변화의 병목지점임을 근래에 더욱 절감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운동도 비켜갈 수 없는 길이다.

이 회의의 제3세션에서는 여성운동을 이슈부터 운동방식까지 리디자인하는 영역별 분과토의가 있었다. 이 중에는 정치분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분과에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점검하면서 2012년도의 양대 선거에 여성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불거졌다. 시간 부족으로 물음에 대한 깊은 논의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숙제로서의 쟁점들은 짚어졌다. 차기대권주자들을 떠올리며 여성정치인이면 무조건인가? 정치권에서는 물론 시민운동권에서 뿌리 깊은 성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등의 문제

도 포함되어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만 보이는 여성의 의회참여 확대 및 여성이 바라는 생활정치, 가치정치와 투명한 정치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정치행동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정치권 또는 시민사회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동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한 패널의 제의가 있었다.

그것은 가칭 '살~림 정치 여성액션 2012'로 '나라를 살리는 정치! 정치를 살리는 여성'이라는 표어를 내세운 여성들과 약자들이 갈망하는 정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기 위해 여성들이 함께 행동하는 캠페인이었다.

제안서는 국민의 70%가 불안해하는 오늘의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직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행동계획도 밝혔다. 지금은 발의자들이 출범을 준비하면서 100명의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문의: 010-4744-5809)

회의를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은 우리나라 여성운동 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화급한 당면문제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세션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일찍부터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활동환경을 개선해내야 한다고 말해오고 있는 선배라는 사람이 해내지 못한 것을 크게 반성한다.

서두에서 7박8일간의 네팔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히말라야를 트래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 여성들과 함께 희망을 일궈내는 활동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한 여행이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잔인한 것이다. 빈곤문제 중에서도 여성의 빈곤이 크게 부각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왜 네팔이냐고 한다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이다. 국내 문제를 제쳐놓은 채 웬 다른 나라냐고 할 수도 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의 가입국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여성운동체들도 외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3위의 나라이다. 우리는 벌써 어려운 이웃 나라 여성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밀었어야 했다.

이 부문에서 앞장선 우리나라 여성단체는 여성환경연대였다. 공정무역이라는 관계망을 통해 아시아의 가난한 여성들에게 지원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라는 양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친환경적 생산과 윤리적인 소비 등으로 설명되는 교역이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개점한 '구루'가 아시아 여성들이 생산한 의류를 비롯한 생활용품 또는 선물용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1호점이다.

이번 여행에는 세 사람이 함께했다. 한 사람은 한국여성재단을 대표하여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시내를 흐르고 있는 강가에 형성된 마노하라(Manohara) 빈민촌에 있는 사라스와티(Saraswati) 초등학교 학생 250명에게 교복과 가방 그리고 물병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팔을 방문하였다. 이 선물은 재단이 매해 5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100인 기부 릴레이에서 18세 미만의 기부자가 기부한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2011년도 5월 100인 기부 릴레이는 지금 진행 중이다. (여성재단 02-336-6364)

한국여성재단이 이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국과 네팔에서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인권및문화발전포럼(AHRCDF)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관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하다가 귀환한 네팔 노동자들이 만든 것으로 여기에는 한국어가 능통할 뿐만 아니라 시

민운동 정신도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네팔 관련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네팔 체류 중 마노하라 마을에 두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갔던 날 놀란 것은 마을 입구에 한글 간판이 내걸린 건물이 자리하고 있어서였다. 다리복지재단의 밥퍼나눔의 집이었다. 1988년에 시작된 캠페인으로 24년 만에 500만 그릇을 나누었다고 하는 밥퍼는 이 집에서 매주 다섯 번 300명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동리 어린이들이 우리가 마을에 들어서자 한국 동요를 불러주어서 반가웠는데 그 노래들은 밥퍼에서 배운 것이었다.

여행을 같이 한 또 한 명은 (주)한국공정무역의 대표로서 그곳의 생산자들과의 업무처리가 그의 우선과제였지만 그곳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이번 여행의 가이드 역할도 겸했다. 그의 안내로 우리가 방문한 기관은 10여 개가 된다. 그중에는 네팔여성을 위한 재단도 있었고, 간디 사상의 영향으로 설립된(1927년) 가난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조와 봉제기술을 가르치는 아쉬람과 그들의 생산품을 파는 상점들도 있다. 공정무역을 위해 환경친화적으로만 들어내는 카펫, 손뜨개, 가구, 도자기 공장도 둘러볼 수 있었다. 히말라야 트레킹의 출발점인 포카라시에서는 트레킹에 나선 여성들이 남성 가이드들에게서 당하는 성추행 문제를 고려해서 여성가이드를 훈련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트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 자매가 운영하는 여행사도 방문했다. 이 고장에서는 네팔공정무역그룹에 가입한, 면직물로 가방을 만드는 공장으로 현재 유럽, 일본, 미국,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성공한 단체도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단체의 책임자는 여성운동가로서 운동 차원에서 일을 시작했고 또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기관들의 공통점은 가난한 여성들에게 기술을 배우게 하고 일자리를 주고 수익의 일정부분으로는 그들이 세운 학교와 고아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겨진 것은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었다.

이들 기관들을 방문 및 면담하면서 내가 하려고 한 것은 나의 여행목적인 네팔의 10대 미망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내고 그들이 처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딸들을 가진 그곳 부모들이 딸들을 시집보내기 전까지 보호해야 하는 유별난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일찍 시집을 보내는 관행 때문에 10대 미망인이 생겨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그 나라의 풍습으로 인해 미망인은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수용해줄 수 없는 존재가 되며 미망인이라는 표시로 흰옷만 입어야 하고 나들이도, 밥 먹는 일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삶을 남은 긴 인생동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자립능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와 관행의 개혁도 따라주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그 나라 여성운동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602명이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이 중의 33%는 여성이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이다. 싱글 여성을 위한 단체도 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들의 역할이 사회변화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40년간의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발전과 정치 참여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축적된 지도력을 네팔 여성들에게 전수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번 네팔 방문에서 얻어낸 것은 앞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연락망을 만들고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측의 그룹은 현재 만드는 과정에 있다.

7박8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역촌동에 마련된, 새로 단체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살림터' 사무실에도 들러야 했고 여성회의를 비롯한 몇 개의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다. 그동안 쌓인 집안일도 제쳐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내용은 지난달 11일~30일까지 20일동안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관여하고 행동한 것들을 간추린 것이다.

2008년 12월 말에 한국여성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공직에서 벗어나면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나를 고용해서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이것은 내게 보너스로 허락된 수명을 사는 제3기의 삶의 구상이다.

내 곁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70평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쉴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산다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니다. 쉴 권리란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아직 시계의 알람 설정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쉴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다만 내가 젊었을 때 다르게 쉴 방법을 준비해두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100세 인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의 제1기는 의무를 다하는 삶으로, 후반부의 제2기는 보람을 위해 사는 것이 이상이라는 것이다. 길어진 후반부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전반부의 삶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간관계망이나 재정적 노후대책과 건강은 물론 놀며, 쉬며, 즐기기 위한 수단도 젊어서 준비되고 익혀두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과 사회의 관행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내가 70대를 살아가기 시작한 참여정부 초기에 잠깐 불어닥친 '사오정 오륙도' 바람으로 집에 들어앉을 생각을 하면서 절감한 것은 바로 나는 시간을 즐겁게 죽일 재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1951년 6·25 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 개설된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학 YWCA의 회원이 된 것이 지난 60년 동안 여성운동, 환경운동, 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운동에 줄곧 몸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전란으로 빚어진 상처에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 YWCA가 추진하고 있던 가족법 개정운동을 함께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의 문제를 깨우치며 여성운동의 활동가가 된 것이 지금까지 활동가로 살아온 길을 이끈 것이다. 1980년대 말에 잠깐 정치권에서 활동한 것도 동료들의 평가에 의하면 나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한다.

정의와 용기는 바로 타인의 고통과 비극을 공감한데서 비롯되며 공감의 연대에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내게 다가올 것이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쉴 권리 행사이다.

인쇄하기

자동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씨네21 임지원입니다.**

받은 날짜 2011년 05월 19일 20:32
 보낸 사람 임지원<lim_jiwon@naver.com>
 받는 사람 박영숙<urionni@empas.com>
 첨부파일 편집자 수정 원고(박영숙).hwp

선생님,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씨네21 임지원입니다. ^^

배운 여자 원고 교정 본 것 보내 드립니다. 통상 필자 선생님들께서 원고를 보내 주시면 이렇게 편집자가 다듬는 작업을 한 번씩 하는데요. 제가 임의로 문장을 좀 덜어내거나 덧붙여 놓으면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다시 내용을 수정해 주시곤 합니다. 우리 원고는 중간 중간에 제목을 달고 그에 맞게 내용에 살을 조금 붙여 봤고, 원고 매수를 적당하게 하기 위해 어느 부분의 설명은 조금 빼기도 했습니다.

우리 원고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선생님께 있는 것이니 제가 보내 드린 원고를 다시 한 번 잘 다듬어서 보내 주셔도 좋고 교정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교정본을 토대로 선생님의 원래 원고를 좀 다듬어서 보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진행은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니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

선생님 그럼 한 번 살펴 보시고요. 제가 내일 연락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고 잘 마무리 해서 얼른 연재 올렸으면 좋겠네요! 편히 쉬시고요.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세로 30세에 행상하고 40세에 변호사가 50세에
2차6월로(리거릿 이즈)

박영숙_ 여성운동가, 환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로 현재 '(재)살림이' 이사장으로 여성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198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 겸 부친경찰서 성고문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 13대 국회의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

박에스터와 함께 시작한 60년 활동가의 길

내가 60년 동안 여성운동,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시민사회운동에 줄곧 몸담게 된 것은 1951년 6.25 전쟁 당시 부산 피난지에 임시로 개설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면서 대학 YWCA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학교의 학생회를 겸하고 있었던 대학 YWCA가 전란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참여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당시 태동하고 있던 가족법개정운동을 접하면서 어린 시절 아들 먼저가 아니라 태어난 순서대로 밥을 퍼주던 부모의 덕으로 내가 일찍이 깨닫지 못했던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문제를 깨우치며, 여성운동의 활동가가 된 것이 80세가 다 된 지금까지 활동가로 살게 하고 있다. 단지 장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갓 태어난 아기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호주가 된다는 사실에 황당해했던 충격은 1990년 제13대 국회에서 가족법이 개정되고 여성들에게 마지막 족쇄로 남아있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2005년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계속되었다.

학교공부는 뒷전으로 한 채 전쟁미망인들을 돕는다고, 방학 때는 농촌계몽활동으로, 주말에는 YWCA의 중고등학생 클럽 지도자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공부를 해야 할 이때 제대로 하지 못한 후유증이 사는 동안 내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삶에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소홀히 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는 것이 '황소'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자 YWCA의 실무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시민사회운동 활동가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 행운을 누렸다.

YWCA에서 내가 누린 행운은 단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는 당대의 여성운동가로 알려진 김활란, 김필례, 고황경, 이태영, 최이순, 박에스터 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미국 YWCA에서 파송된 준비된 지도자였던 박에스터 고문총무는 내 생애 첫 멘토였다. 나는 그에게서 부지런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활동가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저런 명절들도 챙기는 등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아직도 매사에 빈틈이 없었던 그를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는 내 인생의 모델이었다.

박에스터 고문총무가 중요시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지도력 양성이었다. 그는 나에게 많은 기회를 마련해 주며 내가 서른두 살의 젊은 나이에 50년 역사를 앞두고 있는 YWCA연합회의 총무가 되기까지 이끌어 주었다. 나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YWCA 협의회의에 총무 재임기간 동안 두 번 참가했는데, 총무단원이 30대인 경우는 홍콩과 한국 두 나라뿐이었다. YWCA는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회원의 운동, 국제적운동체임을 표방하며 우리 사회 여타 여성운동체와는 다른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YWCA와 함께 한 시

간은 YWCA 이후 나의 활동을 감안할 때 '온실 속의 화초'였던 **시간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 내가 '활동가'라는 이름을 얻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안병무를 만나고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다

별난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낯서도 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며 눈바람이 부는 1967년 12월 29일, 나는 서른일곱의 나이에 독신을 주장하던 안병무와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다. YWCA가 명동성당 건너편에 연합회 건물을 짓고 있을 때였다. 다음해 가을, 회관 준공식 때 내 몸은 만삭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 모든 일이 마음먹었던 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YWCA의 일을 접고 계획에 없었던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살림살이를 즐기는 편이어서 가사가 지겨운 것은 아니었지만 일터에 다시 나가고 싶은 갈망이 목까지 차올랐다. 나는 다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의 사무처장 일을 맡게 되었다.

하나의 단체인 YWCA와 달리 여러 단체의 협의기구인 여협의 일은 내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여러 단체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율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여협은 군부독제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사회**는 압축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한 여성노동자 문제가 분출하고 있었으며, 반환경적인 산업정책의 폐해 **또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여협의 공식입장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1975년 유엔 여성의 해를 앞두고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국가시책을 살피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던 때 나는 다시 상근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유는 또 육아문제였다. 아이하고는 타협이 불가능했다. 어른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진지한 목소리로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니 둘 중에 누가 일을 접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고 물었다. 일방적인 통고였다면 나 역시 여성운동가라 결론이 달리 났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내가 일을 접겠다고 했다. 이렇게 내 유급활동가로서의 생은 끝이 나고 이후는 긴 무급활동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장례식에 가서는 두 번 기도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한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다.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기 원하는 여성들에게 **결혼은 특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결혼 전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폐재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나도 내 세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걸, 결혼을 하면 여성은 만년 누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남편과 나는 결혼 초기 3개월 동안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관여할 수 있는 사안과 범위, 그리고 무관심의 정도를 합의했다. 우리는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그 결혼 방정식을 나름대로 지켰다. 나는 그의 남다른 삶의 소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애썼고, 그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멘토로서 지금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두 번이나 교수직에서 해직되고 1976년 3월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쓴 장정들이 집으로 들어닥치는 일을 겪기도 하고, 구치소를 들락거리며 옥바라지도 하고, 재판을 공개적

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해보지 못한 낮은 삶을 살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들, 남편을 보낸 아내들, 그리고 수많은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거리에서 고난을 겪으며, 나는 비로소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의에 저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투사가 되었고, 사람들의 고통에 연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976년 12월 29일, 10주년 결혼기념일에 풀려난 안병무는 변해 있는 나에게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었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웃겼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뤄낸 절반의 힘, 여성들

우리나라의 긴 민주화운동의 여정에는 물론 여성들도 함께 있었다. 그 시대의 깨어있는 여성들은 여성노동자 생존권투쟁, KBS시청료거부운동, 성고문정권퇴진운동, 고문추방운동, 최루탄추방운동 등을 벌이며 최루탄 가스의 고통과 기동경찰대의 폭력행사에 맞서면서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 대열에 나도 함께 하고 있었다.

나는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구호를 외치며 주먹 권 팔을 치켜드는 것을 멋쩍게 여기는 수줍은 운동원이었다. 그런데 그 수줍음을 순간에 날려버린 것이 바로 1986년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선고공판이었다. 그날 많은 단체의 회원들은 법원 앞마당에서 연좌시위를 하며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고문자 문귀동은 기소가 유예되고 피해자 권 양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우리는 이성을 잃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보다 먼저 구호를 외치고 주먹을 높이 치켜 올리는 투사가 되었다.

2007년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여성들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당시를 기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내가 '부천서 성고문사건'이 나를 진성운동원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자, 동석해 있던 이미경 의원이 그때 내가 법원 문을 막아선 정리의 따귀를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시위 중이던 우리는 그때 일제히 법원 정문을 향해 돌진했고, 정리들이 우리를 막아선 것이다. 나는 까맣게 잊은 일인데 그때 내가 이성을 잃기는 했던 모양이다.

이 사건은 한 경찰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 사고가 아니라 여성의 수치심을 고문의 수단으로 악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된 천인공노할 범죄였다. 성고문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꼭 자행되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사실은 종교인들은 물론 일반시민들, 특히 수녀들이 함께 한 교회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보통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게 되었다. 그리고 9명으로 출발한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 166명의 자원변호인단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 1월 중순 새벽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 보니 한 여성민주투사가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사건을 알려 주며, 자기는 수배 중이라 나설 수 없으니 날이 밝으면 남영동에서 열리는 항의집회에서 날더러 성명서를 낭독하라고 했다. 그날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삼베 수건을 쓰고 전경들이 무력으로 집회를 해산시킬 때까지 격렬한 항의시위를 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일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듯이 거리에서 사는 나를 보며 사람들이 내게 어려운 일들을 맡겨왔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나도 겁쟁이어서 평계를 내세워 피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시위학생들이 겁을 삼이기 위해 '어머니'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여성운동원들은 '애들아'를 마음속에 되뇌며 어렵다고 피해가지 않았다. 긴긴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큰 몫을 해낼 수 있었다.

여성운동에 대한 무관심함

흔히 말하길 우리나라 역사에는 남성의 역사(History)는 보여도 여성의 역사(Herstory)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들의 이야기와 족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우리 여성들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럼에도 남성들의 **문지한 성인 남성(다른 쉬운 말로 할 수는 없을가요?)**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권에서마저 역사기록에서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사진전에 당시 활약한 여성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 기동경찰대원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사진조차 남자가 달아주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었다. 기동경찰대원들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꽃을 달아준 것은 교회여성들이 한 일이었다. 못 배운 수컷들에게 '서서 오줌도 못 싸는 것들이!'라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이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1988년 말부터 얼마 동안 제도정치권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 정당의 부총재로, 당대표권한대행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당 쪽에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여성계에 **적당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수석부회장이던 내가 **지목**이 된 것이다. 정치에 문외한이었지만 내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정치활동을 했다.

내 목표는 일단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탁아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환경업무부서의 격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주력하여 목표를 달성해냈다. 가족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던 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골프장건설 저지, 반환경개발 저지, 산재피해자 보호, 민주인사 석방운동 등을 위한 활동을 했다. 동료 의원들이 나를 두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할 정도였다. 준비 없이 뛰어든 정치 풋내기가 원내 활동평가에서 우수의 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김대중 당 총재라는 정치 멘토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1993년 정치권을 떠나기로 결심한 나는 환갑의 나이에 국제환경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하라는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 1995년 귀국한 후 나는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복귀하면서 시민운동가의 자리를 되찾았다. 지금은 연구소는 떠났지만 이 나라의 환경활동가로서의 내 역할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의무를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한 제1기의 나의 삶이다.

생을 마칠 때까지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 싶다.

요즘 흔히 100세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 제1기의 생은 의무를 다하는 삶으로, 후반부의 제2기는 보람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나의 제2기의 삶은 물론 혼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보람을 찾아서 새롭게 일을 만들어서 의미 있게 추진한 것들이다.

1997년도에는 IMF 금융위기를 맞아 갑자기 급증한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랑의 친구들'을 출범시켰다. 또 여성환경활동가들의 당면과제를 공동으로 풀기 위한 '여성환경연대', 여성단체들의 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을 창립했다. 그리고 가난한 아시아 여성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친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하며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는 '공정무역' 사업을 시작한 것도 제2기의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 내가 찾아 나선 일이다.

2008년 12월 말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누가 제공하는 일거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고용해서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이것은 내게 보너스로 허락된 수명을 사는 제3기의 삶을 살기 위한 나의 구상이다. 내가 70대를 살기 시작한 참여정부 초기에 본 '사오정 오륙도' 바람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건강이 허락하고 의지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바람은 100세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금세 수그러들고 이제 모두 길어진 수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나 역시 같은 고민을 하던 차에 일흔이 넘어서 빛난 인생을 산 여성을 책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는 오가다 사다꼬라고 하는 일본 여성으로 1991년 63세의 나이로 유엔의 제8대 난민 고등판무관이 된 사람이다.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여성 특유의 현장주의 원칙으로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고 지구를 몇 십 바퀴나 돌며 세계 난민들을 구하고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불렸다. 판무관 직에서 떠난 후에도 굼직한 국제회의의 의장으로 활약하며 지금도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국제무대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물론 누구나가 오가다 사다꼬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겠다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지금 내가 나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 활동은 여성활동가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사업의 출범을 지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공간을 '살림터'라고 한다.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활동은 빈곤한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월 11일~18일까지, 7박 8일 간 네팔에 다녀왔다. 히말라야를 트레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네팔의 여성들과 더불어 희망을 일궈내는 활동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한 여행이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잔인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약자인 여성의 빈곤은 여러 가지 가중된 어려움을 겪는다. 하필 왜 네팔이냐고 한다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문제가 많은데 왜 다른 나라냐고 할 수도 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 여성단체들도 우리나라가 OECD의 가입국이 되기 전까지 다른 나라의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규모 13위의 나라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나라의 여성들에게 진작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야 했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네팔의 10대 미망인들이다. 네팔에는 딸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일찍 시집을 보내는 관습이 있다. 그 때문에 10대 미망인의 비율이 높다. 네팔여성이 미망인이 되면 풍습 때문에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되며, 미망인의 표시로 흰옷을 입고, 나들이나 밥 먹는 일까지 자유롭지 않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자립능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와 관습의 개혁도 필요하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이뤄낸 발전내용과 그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네팔여성들에게 전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외면할 수 없는 과제는 내년으로 다가온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여성운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세상을 바꾸는 80퍼센트의 보통사람들을 어떻게 정치세력화 할 것인가? 또 차기 대권주자의 경우 여성정치인이면 무조건 지지해도 되는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운동권에도 아직 남아있는 성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여성계에서는 가칭 '살~림 정치 여성액션 2012' 모임을 만들어 '나라를 살리는 정치! 정치를 살리는 여성'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과 약자들을 배려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친구들 중에는 칠십 평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쉴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쉴 권리'란 일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쉴 권리'라면 비록 아직도 시계 알람을 맞춰 놓고 잠이 들어야 하는 삶이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 '쉴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다만 내가 이렇게 쉬는 것 외에 달리 쉬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육십 평생을 생명, 평등, 평화를 위한 활동가로 살면서 무엇에 쫓기듯 사는 것이 고달프지만 뒤돌아보면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나에게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의와 용기는 타인의 고통과 비극을 공감하는 데서 비롯되고 공감을 통한 연대에 바로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 나의 작은 수고와 나눔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현역으로 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쉴 권리' 행사라는데 불만이 없다.

인쇄하기

자동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최종 원고 보내 드립니다.**

받은 날짜 2011년 05월 23일 15:18
 보낸 사람 임지원<lim_jiwon@naver.com>
 받는 사람 박영숙<urionni@empas.com>
 첨부파일 박영숙 최종.hwp

선생님, 안녕하세요? 씨네21 임지원입니다.
 원고 잘 받아 보았습니다. 좋은 원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종 원고를 다시 한 번 보내 드리는데요, 프로필 정리한 부분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드리고
 제가 조사 등을 바꾼 부분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해 두었으니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문장 흐름이 맞지 않는 부분의 표현을 조금 바꾸거나 조사 정도를 약간 고친 정도니 한
 번 살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원래 표현으로 그냥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생님께 상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무지한 성인지성'이라는 표현을 다른 쉬운 말로 바꿀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성인지성'이라는 말을 찾아보니 사전에는 나오지 않고 학계에서 쓰는 말 같은데요.
 저희 편집부에서 간단하게 여론조사를 해 보니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음.. '반쪽짜리 지성'이랄까 아무튼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꼭 들어맞는 말이 없다면 선생님 원래 표현으로 그
 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고 고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원고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원고 확인해 주신 것과 프로필 사진을 한 장 보내 주시면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원고 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가능하면 웃고 계시는 사진으로, 용량이 큰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 장 보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살펴 보고 좋은 사진으로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회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하기

자동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덧,

받은 날짜 2011년 05월 20일 12:35
 보낸 사람 임지원<lim_jiwon@naver.com>
 받는 사람 박영숙<urionni@empas.com>

선생님! 선생님 다시 주신 원고 정말 좋았습니다.
 원고 꼭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만 두라고 하시니
 제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싶고.... ㅠ ㅠ

선생님, 제가 우리 원고 긴 문장은 좀 자르고, 한자말은 우리말로, 문단은 더 짧게
 이런 식으로 고친 것인데 만약에 원고 고치는 것이 싫으시면 선생님 다시 주신 원고에
 그냥 제목만 달아서 실어도 상관 없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다른 원고들도 많게는 대여섯 번씩 수정 작업을
 거쳐 연재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원고만 특별히 수정이 많고 한 것은 아니니
 부디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작업은 선생님 의견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5.22
HinaP
46.6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

박영숙 (재) 살림이 이사장

박에스터와 함께 시작한 60년 활동가의 길

내가 60년 동안 여성운동,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시민사회운동에 줄곧 몸담게 된 것은 1951년 6.25 전쟁 당시 부산 피난지에 임시로 개설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면서 대학 YWCA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학교의 학생회를 겸하고 있었던 대학 YWCA가 전란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참여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당시 태동하고 있던 가족법개정운동을 접하면서 어린 시절 아들 먼저가 아니라 태어난 순서대로 밥을 퍼주던 부모의 덕으로 내가 일찍이 깨달지 못했던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제를 깨우치며 여성운동의 활동가가 된 것이 80세가 다 된 지금까지 활동가로 살게 하고 있다. 단지 장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갓 태어난 아기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호주가 된다는 사실에 황당해했던 충격은 1990년 제13대 국회에서 가족법이 개정되고 여성들에게 마지막 족쇄로 남아있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2005년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계속되었다.

학교공부는 뒷전으로 한 채 전쟁미망인들을 돕는다고, 방학 때는 농촌계몽활동으로, 주말에는 YWCA의 중고등학생 클럽 지도자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공부를 해야 할 이때 제대로 하지 못한 후유증이 사는 동안 내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삶에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소홀히 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는 것이 '황소'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자 YWCA의 실무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시민사회운동의 활동가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 행운을 누렸다.

YWCA에서 내가 누린 행운은 단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는 당대의 여성운동가로 알려진 김활란, 김필레, 고황경, 이태영, 최이순, 박에스터 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미국 YWCA에서 파송된 준비된 지도자였던 박에스터 고문총무는 내 생애 첫 멘토였다. 나는 그에게서 부지런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활동가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저런 명절들도 챙기는 등의 삶의 많은 부분도 배울 수 있었다. 아직도 매사에 빈틈이 없었던 그를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는 내 인생의 모델이었다.

박에스터 고문총무가 중요시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지도력 양성이었다. 그는 나에게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며 서른두 살의 젊은 나이에 내가 50년 역사를 앞두고 있는 YWCA연합회의 총무가 되기까지 이끌어주었다. 나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YWCA 협의회의에 총무재임기간동안 두 번 참가했는데, 총무단원이 삼십대인 경우는 홍콩과 한국 두 나라뿐이었다. YWCA는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회원의 운동, 국제적운동체임을 표방하며 우리 사회 여타 여성운동체와는 다른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YWCA와 함께 한 시간은 YWCA 이후 나의 활동을 감안할 때 '온실 속의 화초'로 비유할 수 있지만 내가 '활동가'라는 이름을 얻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었다.

안병무를 만나고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다

별난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날씨도 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며 눈바람이 부는 1967년 12월 29일 나는 서른일곱의 나이에 독신을 주장하던 안병무와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다. YWCA가 명동성당 건너편에 연합회 건물을 짓고 있을 때였다. 다음해 가을, 회관 준공식 때 내 몸은 만삭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 모든 일이 마음먹었던 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YWCA의 일을 접고 계획에 없었던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살림살이를 즐기는 편이어서 가사가 지겨운 것은 아니었지만 일터에 다시 나가고 싶은 갈망이 목까지 차올랐다. 나는 다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의 사무처장 일을 맡게 되었다.

하나의 단체인 YWCA와 달리 여러 단체의 협의기구인 여협의 일은 내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여러 단체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율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여협은 군부독재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압축경제 성장정책으로 인한 여성노동자 문제가 분출하고 있었으며, 반환경적인 산업정책의 폐해들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여협의 공식입장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 아니었다.

1975년 유엔 여성의 해를 앞두고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국가시책들을 살피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던 때 나는 다시 상근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유는 또 육아문제였다. 아이하고는 타협이 불가능했다. 어른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진지한 목소리로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니 둘 중에 누가 일을 접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물었다. 일방적인 통고였다면 나 역시 여성운동가라 결론이 달리 났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내가 일을 접겠다고 했다. 이렇게 내 유급활동가로서의 생은 끝이 나고 이후는 긴 무급활동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장례식에 가서는 두 번 기도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한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다.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기 원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결혼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결혼 전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패재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나도 내 세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걸, 결혼을 하면 여성은 만년 누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남편과 나는 결혼 초기 3개월 동안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관여할 수 있는 사안과 범위, 그리고 무관심의 정도를 합의했다. 우리는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그 결혼방정식을 나름대로 지켰다. 나는 그의 남다른 삶의 소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애썼고 그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멘토로서 지금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두 번이나 교수직에서 해직되고 1976년 3월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민주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쓴 장정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일을 겪기도 하고, 구치소를 들락거리며 옥바라지를 하고, 재판을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낮은 삶을 살면서 나는 이전과는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들, 남편을 보낸 아내들, 그리고 수많은 구속자 가족들과 거리에서 고난을 겪으며 나는 비로소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의에 저항하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 투사가 되었고 사람들의 고통에 연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976년 12월 29일, 10주년 결혼기념일에 풀려난 안병무는 변해있는 나에게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었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웃겼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뤄낸 절반의 힘, 여성들

우리나라의 긴 민주화운동의 여정에는 물론 여성들도 함께 있었다. 그 시대의 깨어있는 여성들은 여성노동자 생존권투쟁, KBS시청료거부운동, 성고문정권퇴진운동, 고문추방운동, 최루탄추방운동 등을 벌이며 최루탄 가스의 고통과 기동경찰대의 폭력행사에 맞서면서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 대열에 나도 함께 하고 있었다.

나는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구호를 외치며 주먹 쥔 팔을 치켜드는 것을 멍쩍게 여기는 수줍은 운동원이었다. 그런데 그 수줍음을 순간에 날려버린 것이 바로 1986년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선고공판이다. 그날 많은 단체의 회원들은 법원 앞마당에서 연좌시위를 하며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고문자 문귀동은 기소가 유예되고 피해자 권양에게 1년 6월의 실형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우리는 이성을 잃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보다 먼저 구호를 외치고 주먹을 높이 치켜 올리는 투사가 되었다.

2007년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여성들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당시를 기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내가 '부천서 성고문사건'이 나를 진성운동원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자, 동석해 있던 이미경 의원이 그때 내가 법원 문을 막아선 정리의 따귀를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시위 중이던 우리는 그때 일제히 법원 정문을 향해 돌진했고, 정리들이 우리를 막아선 것이다. 나는 까맣게 잊은 일인데 그때 내가 이성을 잃기는 했던 모양이다.

이 사건은 한 경찰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 사고가 아니라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한 고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된 범죄로서 천인공로할 일이었다. 성고문은 여성피의자들에게 꼭 자행되어 오고 있었고 계속 될 것이라는 데에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사실은 종교인들은 물론 일반시민들, 특히 수녀들이 함께 한 교회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보통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게 되었다. 그리고 9명으로 출발한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 166명의 자원변호인단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 1월 중순 새벽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한 여성민주투사가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사건을 알려주며 자기는 수배중이라 나설 수 없으니 날이 밝으면 남영동에서 열리는 항의집회에서 날더러 성명서를 낭독하라고 했다. 그날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삼베 수건을 쓰고 전경들이 무력으로 집회를 해산시킬 때까지 격렬한 항의시위를 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듯이 거리에서 사는 나를 보며 사람들이 내게 어려운 일들을 맡겨왔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나도 겁쟁이어서 핑계를 내세워 피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당시 시위학생들이 겁을 삭이기 위해 '어머니!'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여성운동원

들은 '애들아'를 마음속에 되뇌며 어렵다고 피해가지 않았다. 긴긴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큰 몫을 해낼 수 있었다.

흔히 말하길 우리나라 역사에는 남성의 역사(History)는 보여도 여성의 역사(Herstory)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들의 이야기와 족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우리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럼에도 남성들의 무지한 성인지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권에서마저 역사기록에서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사진전에 당시 활약한 여성들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 기동경찰대원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사진조차 남자가 달아주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었다. 기동경찰대원들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꽃을 달아준 것은 교회여성들이 한 일이었다. 못 배운 수컷들에게 '서서 오중도 못 싸는 것들이!'라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이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1988년 말부터 얼마동안 제도정치권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 정당의 부총재로, 당대표권한대행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당 쪽에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여성계에게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수석부회장이던 내가 나서게 되었다. 정치에 문외한이었지만 내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정치활동을 했다.

내 목표는 일단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탁아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환경업무부서의 격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주력하여 목표를 달성해냈다. 가족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던 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골프장 건설 저지, 반 환경 개발 저지, 산재피해자 보호, 민주인사 석방운동 등을 위한 활동을 했다. 동료 의원들이 나를 두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할 정도였다. 준비 없이 뛰어든 정치 풋내기가 원내활동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김대중 당 총재라는 정치멘토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1993년 정치권을 떠나기로 결심한 나는 환갑의 나이에 국제환경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하라는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 1995년 귀국한 후 나는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복귀하면서 시민운동가의 자리를 되찾았다. 지금은 연구소는 떠났지만 이 나라의 환경활동가로서의 내 역할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의무를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한 제1기의 나의 삶이다.

생을 마칠 때까지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 싶다.

요즘 흔히 100세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 제1기의 생은 의무를 다하는 삶으로, 후반부의 제2기는 보람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나의 제2기의 삶은 물론 혼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보람을 찾아서 새롭게 일을 만들어서 의미 있게 추진한 것들이다.

1997년도에는 IMF 금융위기를 맞아 갑자기 급증한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랑의 친구들'을 출범시켰다. 또 여성환경활동가들의 당면과제를 공동으로 풀기 위한 '여성환경연대', 여성단체들의 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을 창립했다. 그리고 가난한 아시아 여성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친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하며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는 '공정무역' 사업을 시작한 것도 제2기의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 내가 찾아 나선 일이다.

2008년 12월 말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누가 제공하든 일거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고용해서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이것은 내게 보너스로 허락된 수명을 사는 제3기의 삶을 살기 위한 나의 구상이다. 내가 70대를 살기 시작한 참여정부 초기에 '사오정 오륙도' 바람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건강이 허락하고 의지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바람은 100세 시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금세 수그러들고 이제 모두 길어진 수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나 역시 같은 고민을 하던 차에 일흔이 넘어서 빛난 인생을 산 여성을 책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는 오가다 사다프라고 하는 일본 여성으로 1991년 63세의 나이로 유엔의 제8대 난민고등판무관이 된 사람이다.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여성 특유의 현장주의 원칙으로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고 지구를 몇 십 바퀴나 돌며 세계 난민들을 구하고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불렸다. 판무관 직에서 떠난 후에도 굼직한 국제회의의 의장으로 활약하며 지금도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국제무대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물론 누구나가 오가다 사다프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겠다는 자세는 배울 수 있다.

지금 내가 나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 활동은 여성활동가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사업의 출범을 지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공간을 '살림터'라고 한다.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활동은 빈곤한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월 11~18일까지, 7박8일 간 네팔에 다녀왔다. 히말라야를 트래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네팔의 여성들과 더불어 희망을 일궈내는 활동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한 여행이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잔인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약자인 여성의 빈곤은 여러 가지 가중된 어려움을 겪는다. 하필 왜 네팔이냐고 한다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문제가 많은데 왜 다른 나라냐고 할 수도 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 여성단체들도 우리나라가 OECD의 가입국이 되기 전까지 다른 나라의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규모 13위의 나라이다. 진작 어려운 이웃나라의 여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했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네팔의 10대 미망인들이다. 네팔에는 딸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일찍 시집을 보내는 관습이 있다. 그 때문에 10대 미망인의 비율이 높다. 네팔여성이 미망인이 되면 풍습때문에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존재가 되며, 미망인의 표시로 흰옷을 입고, 나들이나 밥 먹는 일까지 자유롭지 않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자립능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와 관습의 개혁도 필요하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이뤄낸 발전내용과 그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네팔여성들에게 전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외면할 수 없는 과제는 내년으로 다가온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여성운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세상을 바꾸는 80%의 보통사람들을 어떻게 정치세력화 할 것인가? 또 차기 대권주자의 경우 여성정치인이면 무조건 지지해도 되는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운동권에도 아직 남아있는 성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여성계에서는 가칭 '살~림 정치 여성액션 2012' 모임을 만들어 '나라를 살리는 정치! 정치를 살리는 여성'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과 약자들을 배려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친구들 중에는 칠십 평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쉴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쉴 권리'란 일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쉴 권리'라면 비록 아직도 시계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들어야 하는 삶이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 '쉴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다만 내가 이렇게 쉬는 것 외에 달리 쉬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육십 평생을 생명, 평등, 평화를 위한 활동가로 살면서 무엇에 쫓기듯 사는 것이 고달프지만 뒤돌아보면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나에게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것들을 나는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의와 용기는 타인의 고통과 비극을 공감하는데서 비롯되고 공감을 통한 연대에 바로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 나의 작은 수고와 나눔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쉴 권리' 행사라는데 불만이 없다.

자동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씨네21박스 임지원입니다.**

받은 날짜 | 2011년 07월 27일 18:00
 보낸 사람 | 임지원<lim_jiwon@naver.com>
 받은 사람 | 박영숙<urionni@empas.com>

선생님, 안녕하세요? 씨네21박스 임지원입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비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별 피해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배운 여자' 단행본 작업 관련하여 간단한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서
 메일을 드리는데요. 그 전에 원고료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선생님, 제가 회사 측에 선생님 원고료 지급은 조금 늦춰 달라고 이야기를 해뒀
 습니다.
 원고료는 한겨레 연재료 10만 원에 단행본 원고료 20만 원 해서 총 30만 원인데
 요.
 큰 돈은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받아 주시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겨레 아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을 물론 짐작 하는데요. 제가 애사심이
 부족한 사원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선생님께서 원고료 받으셔서 활동가 분
 들
 밥이라도 좀 사 주시고 하는 것이 이 돈 30만 원이 더 값지게 쓰이는 길이 아닐
 까 합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서 원고 주셨는데 원고료 받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요.
 다시 한 번 계좌 정보 여쭙오니 사양 마시고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선생님께서 이 돈 드리는 것이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이름 : 박영숙
 이메일 : urionni@empas.com
 주민번호 : 7
 주소 : [REDACTED]
 연락처 : [REDACTED]
 계좌번호 : (은행명도 적어 주세요)
 직장 :

선생님 원고료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용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운 여자> 단행본이 9월 중순 출간 예정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민 끝에 필자들의 얼굴을 예쁜 일러스트로 담을 예정인데요.
 그 옆에 필자들의 재미있는 소개글도 한 번 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문 11답'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살펴 보시고 공란 채워서 보내
 주시면 보다 재미있는 책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말고 조금 재미있게 부탁 드려요~!! ^-^*)

홍길동(30) / 의적
(자기 이름과 직업 적어 주세요~)

1. 내 인생을 이끄는 한마디는?
2.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3. 제일 많이 울어 봤던 기억은?
4. 나는 여자라서 만족이다/불만이다(택1)
5. 여자라서 잘해낼 수 있는 일은?
6. 과거의 한 순간을 지금 바꿀 수 있다면?
7.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8.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헤어진다/도망간다(택1)
9. 이 사람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 십 년 후 내 모습은?
11. 이십대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그런데 제가 이 메일을 보낸 후에 어떤 필자분께서 질문 메일을 하나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답변 내용을 덧붙여 봅니다.

또 임지원입니다. 필자분 중의 한 분이 질문을 해 주셔서요.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런 식의 질문이 꼭 필요한가요?
또 다른 하나는, 재미있게 쓰라니 자신 없네요... 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필자분들께서 다들 정말 좋은 원고를 써 주셨는데요.
감동이 컸던 만큼 일반 독자들에게는 약간 무거운 느낌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

는
편집자로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밝고 따뜻하게, 소위 '좌파'
느낌의 책이 아닌

'인생 선배가 들려 주는 인생 이야기' 정도로 밝게 꾸며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일러스트와 조금 재미있는 소개글을 넣어 보면 어떨

까

생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강의 전에 교수님들께서 가벼운 농담을 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다고 질문들을 그저 재미로 뽑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필자들의 성격과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질문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질문들을 통해 편집자로서 나름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래 예시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주책스럽고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11문 11답 제가 해봤어요;;)

음.. 그리고 아래 예시를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재미있게 쓰라니 자신없어요..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솔직하고 쉽게 써 달라는 것이지 일부러 웃겨 달라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에고.. 제가 필자들을 끝까지 참 많이 고생 시켜 드리네요;;

이것으로 정말 끝이고, 다음 번에는 책 출간 소식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끄럽지만 아래 한 번 살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최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원(30) / 출판편집자

1. 내 인생을 이끄는 한마디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진부한 명언이라 생각했었는데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또 어려운 말인지를 알았다)

2.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대학 시절 좋아하는 남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었을 때

(사람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이때 확실히 알았다)

3. 제일 많이 울어 봤던 기억은?

2008년 서울광장에 정의구현사제단이 처음 나온 날

(신부님께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여러분 외로우셨죠?" 하는데 눈물이 펄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4. 나는 여자라서 만족이다/불만이다(택1)

불만이다(보기만 해도 힘센 사람이 되서 무례한 아저씨들을 눈빛으로 제압하고
싶음)

5. 여자라서 잘해낼 수 있는 일은?

마음 쓰는 것과 감사하는 것(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여자들이 절대 우위에 있다)

6. 과거의 한 순간을 지금 바꿀 수 있다면?

없다(다 잘해서가 아니고 한 순간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

7.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그 사람의 고운(?) 마음을 목격했을 때

(가령,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썩은 복숭아 작전 같은 순간)

8.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헤어진다/도망간다(택1)

도망간다(자식이 행복한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 이 부분은 비혼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대하는 필자들의 태도를 묻기
위해

넣은 질문이었는데요. '결혼'이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괄호 열고 '원
하는 일'이라고

써 넣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결혼'은 그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감렬하게 겪
는 문제여서

선택한 표현일 뿐이고요...

9. 이 사람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향친구 4인방(집이 없어도 돌아갈 곳이 있는 기분이다)

10. 십 년 후 내 모습은?

십 년쯤의 생명력을 가진 스테디셀러를 다섯 권 정도 낸 편집자

(가장 많이 팔린 책보다 세월이 흘러도 다시 읽어 보고 싶은 책을 여러 권 만들어
냈길)

11. 이십대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마음 시키는 대로 전부 해 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깨지고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정말로)

선생님, 제 용건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계좌 정보, 11문 11달 답변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굿은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Re:씨네21박스 임지원입니다.

받은 날짜 : 2011년 08월 08일 15:10

보낸 사람 : 박영숙<urionni@empas.com>

받는 사람 : 임지원<lim_jiwon@naver.com>

답합니다.

1)살아있음을 감사하라.

(이 순간에도 하고 싶고 해야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2) 손녀가 아홉 살 때 '할머니! 저는요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일 할래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린 손녀의 눈에 비친 할머니의 모습이 이정도면 행복할 수밖에)

3) 특별히 기억나는 경우가 없는 데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 보면 마음이 강박한 편은 아닌가보다.

4) '만족이다.' 이유는 나는 음식 만들고, 바느질하고, 뜨개질하는 것을 즐기니까.

5) 여자라서 잘 해낼 수 있는 일은 잘 모르겠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니까 잘해지더라.

6) 상대방의 수고를 생각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해 저질러진 잘못 (후회한들 무엇하리, 용기가 필요했다)

7) 진지함과 성실함에 접했을 때

8) 도망간다 (내 인생을 부모가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에)

9)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 (어떻게 살아야 한느가를 보여주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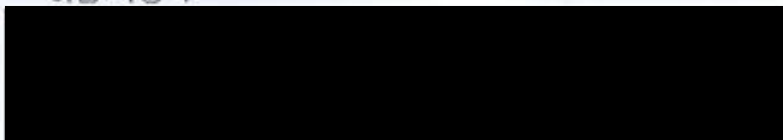
10) 유감스럽게도 10년 후 나는 이 세상에 없다

(다만 손녀가 여섯 살 때 생일카드에서 빌어준 대로 죽으려면 행복+기쁘게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

11) 매사는 때가 있는 법, 평생을 좌우할 요건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연마하기를.

말씀하신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박영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Original Message -----

Date: Wednesday, Jul 27, 2011 06:00:06 PM

From: 임지원 <lim_jiwon@naver.com>

To: 박영숙 <urionni@empas.com>

Subject: 씨네21박스 임지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씨네21박스 임지원입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비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별 피해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배운 여자' 단행본 작업 관련하여 간단한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서

메일을 드리는데요. 그 전에 원고료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회사 측에 선생님 원고료 지급은 조금 늦춰 달라고 이야기를 해